

김영록 전남도지사, “광주~영암 아우토반, 적극 추진할 것”

도민과의 대화...“군, 야간경관 조명사업 지원 등 요청”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영암군 도민과의 대화서 광주~영암 아우토반(초고속도로)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전남 영암군 영암군민회관에서 열린 ‘영암 도민과의 대화’서 “광주~영암 아우토반이 건설되면 서남권 관광의 판이 바뀐다”며, “전남도와 영암군이 긴밀히 협력해 아우토반 건설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민과의 대화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우승희 영암군수와 강찬원 영암군의회 의장, 신승철·손남일 전남도의원, 김종득 영암경찰서장, 윤강열 영암소방서장, 전남도 실국장, 영암군민 등 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우승희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세계로 도약하는 전남도와 김 지사의 혁신기조에 발맞춰 영암군도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이라는 슬로건 아래 변화와 혁신으로 영

암을 새롭게 바꿔나가고 있다”며 “관광과 문화, 복지와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영암을 생태힐링도시로 조성하는 데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군수는 이날 영암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영암·삼호읍 권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대한 전남도의 도비 1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영암군은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읍 소재지의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올해는 이미 관련 사업이 마무리 됐다”면서 “내년도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영암군민들도 이날 대불산조잔디 축구장 야간조명 설치공사와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영암문화예술회관 건립, 대불국가산단 보조사업 도비 부담

비율 상향 등 현안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역 청년협의체 대표인 하준호 씨는 “영산호 국민관광지의 지속적인 쇠퇴를 막고 지역 대표 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위해 마중물 사업이 절실하다”며, “관광객 유입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장수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부회장은 “대불산단은 지난 8년간의 조선업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 차츰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면서 “대불산단에 대규모 투자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신규·계속 사업에 대해 도비 부담 비율을 현재 3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전 시군의 노후산단을 지원하려고 하니 도·시군의 예산 매칭 비율을 3대7로 하고 있다”며 “도비 부담 비율을 70%까지 올린 힘드나, 군 재정을 감안해 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4일 전남 영암군 영암군민회관에서 열린 ‘영암 도민과의 대화’서 “광주~영암 아우토반이 건설되면 서남권 관광의 판이 바뀐다”며, “전남도와 영암군이 긴밀히 협력해 아우토반 건설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제공

부담을 40~5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지사는 도청 실국장들에게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현안사업들에 대한 지

원을 약속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남도의 소금강 월출산과 호남의 젓줄 영산강을 품에 안은 영암은 유서 깊은 역사와 찬란한 문화, 맛깔난 음식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

고, 첨단전략산업 기반도 착착 갖춰가고 있다”며 “영암 발전이 전남 서부권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 영암의 발전을 위해 전남도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용운기자

광주시, 쉬어브로·즐거브로·느껴브로 등 ‘테마형 시티투어버스’ 3코스 출시



광주시(시장 강기정)와 광주관광재단이 ‘테마형 시티투어버스’ 정기노선을 출시했다. 오는 17일부터 본격 운행하는 테

마형 시티투어버스는 ‘쉬어브로(자연힐링+미식)’, ‘즐거브로(미식+MZ 니즈결합)’, ‘느껴브로(가족+전시)’ 등 3코스로 구성됐으며, 매주 토·일

요일 운행한다.

자연힐링과 미식을 주제로 한 ‘쉬어브로’는 증심사와 포춘사, 공연마루를 잇는 코스로, 힐링가든휴에서 즉석체험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함을 더했다.

‘즐거브로’는 미식과 엠제트(MZ) 세대 수요를 결합해 만든 코스이다. 양림동골목투어와 동명동 꿈브루어리에서 양조장체험을 한 뒤 광주 미디어아트플랫폼 지맵(GMAP), 남도달밤야시장(미운영패 뷰폴리)을 도는 코스이다.

가족과 전시를 함께하는 ‘느껴브로’는 고려인문화관 ‘결’에서 미트로

시카 쿠키만들기를 체험하고, 광주 미디어아트플랫폼 지맵(GMAP), 전일빌딩, 뷰폴리로 구성됐다.

올해 시티투어버스는 화려한 색채(핫핑크)와 장문을 활용한 트리아트 디자인을 접목시켜 입체적이고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해 타는 사람과 보는 사람의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6월부터 운행하는 테마형 시티투어는 트리아트에 지역 체육선수(안산, 김국영, 강다슬)가 달리는 모습을 덧입혀 함께 달리고 싶은 역동적인 모습을 더했다.

* 안산 : 광주시 홍보대사, 2020

도요올림픽 여자 양궁 3관왕

* 김국영 : 광주시청 육상남자 100m 국가대표

* 강다슬 : 광주시청 육상여자 100m선수

김성배 관광도시과장은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했다”며 “광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움직이는 하나의 예술작품(시티투어버스)을 타고 여행하며 광주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최와 발맞춰 운행 중인 시티투어 버스(순환형)는 7월 9일까지 매주 화

요일 1일 9회 1시간 배차간격으로 운행된다. 송정역을 기점으로 유스퀘어터미널, 상무지구 등 주요 거점지를 비롯해 비엔날레전시관, 파빌리온 전시관(양림동 일대)을 경유하는 코스로 구성돼 있다.

시티투어버스는 자유탑승권 형식으로 운행되며, 관광객들은 버스를 타고 본인이 원하는 정차지에 자유롭게 오르내리며 광주 관광지를 둘러 볼 수 있다.

이용요금은 성인기준 4천900원이며, 비엔날레 전시관 입장권 소지자는 약 20% 할인된 요금인 3천900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광주시 시티투어 예약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gwangjuc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문수기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 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 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